

특별취재

군산, 장애인 주차공간 확대 필요

공공기관 등 전용구역 마련해 놓았으나 이용 하기 불편

군산해경, 해양안전 위협 강력 단속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되고 있어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안전저해사범이란 해양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거나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음주운항, 과속, 무면허,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구명동의 미착용 10건 ▲출입항 미신고 8건 ▲승선정원 초과 7건 ▲무면허 운항 4건 ▲음주운항 4건 ▲승객명부 허위신고 3건 등이다.

군산해경은 여름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유람선, 여객선,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서부보훈청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발굴 부대 위문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최근 정읍에서 열린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에 참석해 유해발굴 부대를 위문했다.

김생기 정읍시장, 전북지역 보훈단체장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고립된 북한군 전담을 소탕하기 위해서 1950년 9월부터 1952년 8월까지의 전투에서 전사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행사로 참석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성공적인 유해발굴을 기원했다.

앞으로 유해발굴은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35사단 장병이 참여하여 진행되며 발굴된 유해는 정읍대에 임시봉안 후 서울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운구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기관 공개모집

군산시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민간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역장애인에게 조사·연구, 교육, 상담, 정보제공, 지역 사회화력사업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재활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 등 종합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탁신청 응모지역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기상 등록된 시설·법인·단체면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교육 기관으로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 면적 9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오는 13일까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수탁 운영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재정부담능력·사업수행능력·전문성 등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청사내 카페시설 8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군산시는 오는 8월부터 시청 청사내 카페시설(1층 안내데스크 옆)을 위탁·운영한다.

시는 지난 6월 시청 내 카페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을 공개모집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공신력,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진행 됐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청사 내 카페 시설 운영을 통해 비리사와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시청시설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휴게공간을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장애인을 위한 공간에 대해 장애인의 환경여건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주차공간이 정착 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군산시청에 근무 중인 A씨(29·남)는 어릴 적 감전사고로 팔꿈치 아랫부분의 양팔을 모두 잃고 1급 지적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하반기 장애가 없고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인 구역에 주차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거나 한 겨울 눈보라가 쳐도 출입문과 가까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가능 스티커가 없는 관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일반인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단속제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A씨와 같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주차가능 자격을 부여하고,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하 1층 주차장 장애인 전용공간을 확대해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 관계자는 “현재 장애 등급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뉘는데 장애의 특성, 환경 등 개인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자체에서 탄력적 운영 방침을 세워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7,300명으로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1~3급)은 6,486명이며 주차가능 스티커 발급대상자는 3,620명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관광 브랜드네이밍 최종 확정

Hello, Modern · BI

전국 최대 근대문화유산 관광명소 이미지 구축과 시간여행도시 군산만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네이밍 Hello, Modern과 BI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관광 브랜드네이밍 및 BI는 지난 3월 시안 제작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군산관광의 이미지와 시민 누구나 관광도시 군산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제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관광브랜드 시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내외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객관성과 대중성을 담보했다. 또한 선호도 조사 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시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시 제기된 의견 반영과 보완을 통해 군산관광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린 관광 브랜드가 탄생했다.

확정된 브랜드네이밍 Hello, Modern의 콘셉트는 군산이 간직한 근대 역사의 아픔을 가슴속에 새기고, 근대와의 만남을 밝은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함께 될 때의 디자인 모티브는 근대 모던보이들의 필수품이었던 회중시계의 이미지를 넣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인물을 표현해 특별하고 아름다운 힐링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만들어 냈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시간여행 도시 군산의 관광브랜드를 관광안내관, 각종 홍보물, 기념품 등 관광 관련 모든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며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군산관광이 한층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많은 고민과 진통 속에 탄생한 이번 관광 브랜드 시안을 활용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는 2016 군산시간여행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군산관광 콘텐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코레일, 동익산역에 최초로 E&S 시스템을 도입

코레일은 최근 철도화물역 가운데 최초로 동익산역에 하역 시 입환을 생략할 수 있는 E&S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S 시스템은 화물열차에서 화차를 분리 또는 연결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던 기존의 복잡한 입환 방식을 생략하고 화물전용 플랫폼에서 컨테이너를 바로 하역하는 화물취급 방식이다.

코레일은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달 7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동익산역에 최초로 E&S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하역취급 절차가 간단해지면서 대량화물 위주로 운영하던 철도화물도 소량운송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인력 운용으로 미래 경쟁력까지 제고하게 됐다.



최덕를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E&S 시스템 도입으로 소량운송을 원하는 업체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향후 지

속적인 검토를 통해 다른 철도화물역에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군산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비브리오 등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해 20~37

℃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이 있으며, 불과 3~4시간 만에 100만 배로 늘어난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패류는 가급적 -5℃이하로 저온 보관하거나 60℃이상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간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은 활어회 패류 등을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패류는 가급적 -5℃이하로 저온 보관하거나 60℃이상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의대 병리학교실 채수천 교수팀

마이크로알엔에이 발굴·규명

장 관련 질환 진단·치료 후보물질 개발 정보 제공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종)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채수천 교수(사진)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한 연구를 통해 염증성 장 질환에 연관된 마이크로알엔에이(microRNA, MIR)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

MIR는 22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비번역 RNA로 전사 및 전사 후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MIR는 이들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 다양한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염증성 장 질환에 관련된 MIRs를 발굴하기 위해 사람의 궤양성대장염(UC) 마우스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DSS(dextran sulfate sodium)로 대장염 마우스를 만들어 이들 장 조직을 이용 대장염 관련 마이크로알엔에이 429(MIR196B)를 마이크로알엔에이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기법으로 발굴했다.

또한 MIR429를 과발현한 세포주와 정상 세포주에서 분리한 엠알엔에이(mRNA)의 발현 정도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마이크로어레이 칩을 이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수의 MIR429 표적 유전자를 발굴했으며, 그들 중 MARCKS 유전자와 MIR429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했다.

한편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될 노폐물을 비롯한 다양한 박테리아에 노출돼 있으며, 면역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로서 장 표면이 직접 유해물질이나 박테리아에 노출되면 염증 유발과 함께 각종 장 질환으로 발달하게 된다.

채수천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MIR429가 직접적으로 MARCKS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규명했으며, 장이 외부 유해물질의 침범으로 염증이 일어 나면 이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MIR429가 감소하게 돼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던 표적 유전자인 MARCKS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질 내에 있는 미소소체를 장 표면에 밀어내어 장 표면을 보호하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연구팀은 대장암 세포주, DSS로 유도된 마우스의 대장염 조직 및 사람의 UC 조직을 이용해 미소소체 기능을 규명했으며, MIR429의 발현 조절을 통해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rohn's and Colitis' 7월 호에 출판됐으며, 채수천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 및 염증성 장질환에 관련된 다수의 MIRs 발굴과 함께 이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장 관련 질환 진단 및 치료 후보물질 개발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업무실적 위주 인사 강조

정현을 익산시장의 지난 4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사다”며 인사가 잘 이뤄져야 조직도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으며 성과도 낼 수 있다”며 이번 하반기 인사가 시장운영방향을 가늠해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승진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기계적으로 승진하는 이른바 ‘채워넣기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업무실적 위주의 인사를 강조했다.

이어 “민약 승진요인에 적합한 직원이 없다면 당장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다음 인사시기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반대로 자리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있다면 먼저 승진을 시킬 수도 있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직원간의 소통과 복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만큼 우리 직원간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우리 직원과 내가 협심하면 못할 일이 없고 정치권이냐 중양부처의 인맥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나를 활용하라”며 “그 간의 행정경험과 경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원들과 함께 시장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소룡동 야외수영장 8일 본격 개장

군산 소룡동 야외수영장이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야외수영장은 소룡동 1666번지에 부지면적 약 1만1000㎡로 조성됐다.

주요시설은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과 놀이시설인 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시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개장 전 주요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전문가에 의뢰

해 종합놀이시설, 워터슬라이드 2개소 등에 대해 안정성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주요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 및 편의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아백여 명을 초청하는 등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수영장 개장기간은 8일부터 8월 25일까지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입장료는 유아 2,000원,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다.

▲군산=문정곤기자